

이순신 친필 수결 ‘의병장 임명첩’ 보물 승격 추진

전남도, 오늘 학술대회 개최
관련연구자 참여 집중조명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직접 수결(手決)한 ‘친필 의병장 임명첩’이 국가 보물로 승격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14일 고흥군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고흥 신군안(申君安·1544~1598) 의병장 임명첩의 국가 보물 승격을 위한 가치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지역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의병사 관련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문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의 당위성을 집중 조명하게 된다.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은 현재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돼 있다.

임명첩은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시

기인 1597년 12월14일 신군안이 보낸 의병 활동 보고서를 치하하고 의병장으로 임명한 친필 서첩이다.

삼도수군통제사가 재임하던 중 직접 써서 수결까지 해 발급한 의병장 임명첩으로 현재까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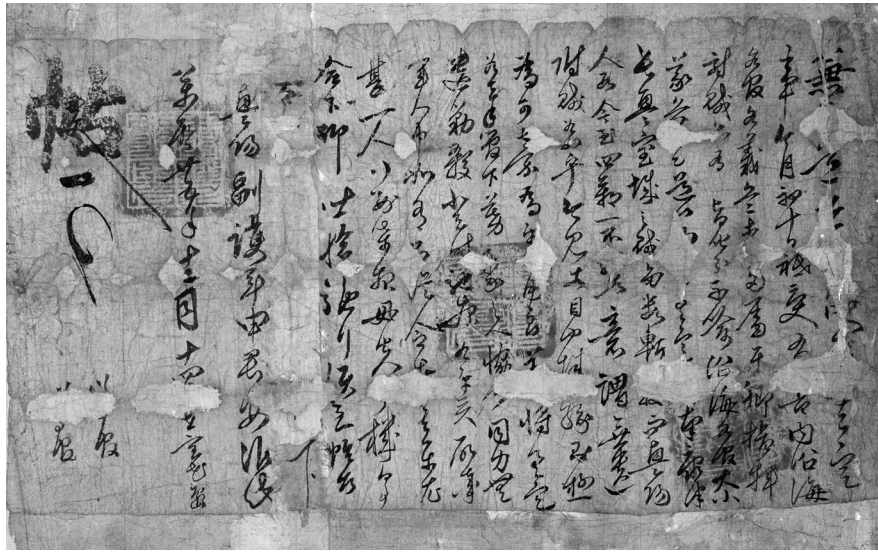
임명첩에는 의병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수군통제사에게 주어졌고 신군안이 보낸 의병 활동 결과 보고를 치하하면서 ‘의병장에 임명하니 더욱 분발해 싸우되 특히 군율을 엄격히 하라’는 것 등이 담겼다.

이 임명첩은 임진왜란 때 수군의 전력을 높이는데 연해지역 의병 활동이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다.

의병사와 해전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신군안 의병장은 고흥 향양(고흥)에서 의병을 일으켜 연해지역 7개 읍을 중심으로 전과를 올린 뒤 선조 31년(1598) 진중에서 순절했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의병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직접 수결(手決)한 ‘친필 의병장 임명첩’이 국가 보물로 승격이 추진된다. 이 임명첩은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12월14일 신군안이 보낸 의병 활동 보고서를 치하하고 의병장으로 임명한 친필 서첩이다. 전남도 제공

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유물의 가치를 높여 선양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후손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

명첩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지정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장흥군, 2655명 운영

장흥군은 오는 22일까지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집중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전년도 대비 14% 증가 되었으며, 총 3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운영한다.

사업 유형별로 공익형 2250명, 사회서비스형 355명, 시장형 50명 등 2023년 대비 322명이 늘어난 총 2655명을 모집하고 있다.

공익형·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노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지역자활센터 등 각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흥=김진환 기자

어린이 안전 체험 한마당 행사
광양시, 어린이 맞춤교육

광양시가 지난 2, 3일 이틀에 걸쳐 성황다목적체육관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관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안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안전 한마당 행사는 지역 내 6~10세 어린이 및 보호자 약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올해는 △광양소방서 주관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화재 대피 체험 △경찰서 주관 ‘경찰관 직업체험’이 새롭게 추가됐다.

△수상 안전 체험 △내 몸의 소중함 이해하기 △재난 예방 VR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채롭고 유익한 실내외 11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차량 급제동 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차량탑승 체험과 소방차 열쇠고리 비즈 만들기 체험은 큰 인기를 끌었다.

체험교육이 끝난 후에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해 재난 안전 기본상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 문화 가치를 확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가 지난 2~3일 성황다목적체육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한마당 체험 행사를 열었다.

광양시 제공

광양제철소, 열연코일 누적 생산량 5억톤 달성

조업 37년만에… 기념비 제막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12일 열연코일 누적 생산량 5억톤을 달성했다. 제철소는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1열연공장 앞에서 가졌다.

제막식은 이진수 광양제철소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압연 부소장과 열연부 및 협력사 직원 등 80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쇳물을 가공해 만든 열연코일은 그 자체로 자동차구조용 강판, 혹은 각종 파이프와 건설자재로 쓰이거나 냉간압연 공정을 거쳐 자동차 외장재, 가전제품 소재 등으로 사용된다.

두꺼운 판재 모양의 철판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높은 온도에서 누르고 눌러 두께를 얇게 만든 철강 코일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냉간압연 공정은 열연코일을 더 얇게 가공하는 과정으로 이 공정을 거친 제품이 냉연코일이다.

광양제철소는 1987년 1열연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열연코일 생산을 시작했다. 1990년, 1992년과 2014년 2, 3, 4열연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2일 열연코일 누적 생산량 5억톤을 달성했다. 제철소는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1열연공장 앞에서 가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공

제철소는 조업 37년 만에 열연코일 생산 누계 5억톤 신기록을 달성했다.

열연코일 5억톤은 펼쳤을 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38만km를 41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소형 승용차 5억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광양제철소의 이 같은 기록은 △설비 강건화를 통한 압연피치단축 △가열로 자동화율 향상 △압연라인 터널형 보열커버 설치 △압연 운전실 통합과 같은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양제철소는 친환경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로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

아 지난해 세계 자동차 강판 생산량의 10% 수준인 810만톤 자동차 강판을 생산해 국내외 자동차사 및 부품사에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수 광양제철소장은 “저탄소 대전환에 맞춰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열연부는 △설비 개선을 통한 재질 편차 제로화 △기술 고도화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AI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현 등에 나서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조성
여수시 국동



여수시 국동은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5통 마을 옹벽에 태극기와 오색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마을주민 등 참가자들은 마을 옹벽에 너쿨장미 35그루와 태극기, 오색 바람개비 160개 등으로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했다.

김숙례 5통장은 “바람개비 동산이 5통 주민의 희망이 담긴 소중한 장소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국동을 찾은 모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에너지 불평등 해결 방안’ 포럼
순천시, 에너지 복지 정책 모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4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 주관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불평등 해결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과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인한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직면한 상황에서,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보급의 공적 기능 확대로 지속가능한 순천의 종합적 에너지 복지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후변화와 불평등(조전호 전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 △에너지 위기와 지역의 에너지 지원 정책 방안(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기후 위기대응 에너지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에 대해 발표하고, 송경환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